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4월 29일
(월요일)

복부신문 4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 '논란'

강북구의회, 제안자 철회요청 부결시키고 수정동의안 통과시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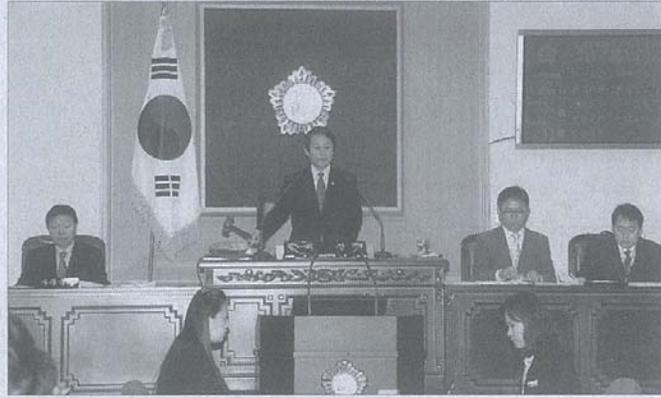
강북구의회 제169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5일부터 열린 것으로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상임위원회별로 강북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기간 등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자료요구 협의의 건 등을 상정 처리하며 조례안 심의에 나섰고 위원회별로 현장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23일 마지막본회의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강북구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조례'가 철회동의의 건까지 상정돼 표결 끝에 부결시키고 운영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 내용을 가결시키는 등 논란을 거듭했다.

이 조례는 안전상정을 위한 운영위원회(위원장 박문수) 심사에서 장애의원의원인 박문수 의원의 발의로 최선 의원이 제안설명에 나섰으나 장애의원의 구분 정도와 보조근무자 채용문제로 2차 위원회 회의까지 열며 '의정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과 '사무국장이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의 내용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했던 안건이다. 그러나 발의자인 박문수 의원이 본회의에 철회동의를 냈고 이 안건은 결국 운영위원회 수정동의안이 가결된 것이다.

이날 유균성 의원은 "운영위에서 2차까지 심도있게 심의해 본회의에 올리려던 조례안이 갑자기 철회하려는 사유가 무엇인지를 밝혀달라"며 "발의자 의원이 내가 꼭 이 혜택을 받아야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면 전체 장애인을 생각해보면 절대 철회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철회동



강북구의회 제169회 임시회가 지난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사진은 본회의 장면.



유균성 의원



박문수 의원

의에 이의를 제기해 표결로 몰아갔다. 유 의원은 "3선의 동료의원은 함께 산에 오르고 비교시찰 해외연수도 다녀와 이 시점에서 인력보조를 꼭 받아야 하는 건지, 본인을 위한 조례제정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의원 개인의 사심을 가져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문수 의원은 "수정안의 내용중 대상의원의 기준이 너무 추상적이고 장애의원의 추천으로 인력보조를 받아야 하는 내용이 배제돼 철회하려 했던 것"이라며 "이 조례는 나만 해당되는 조례가 아니고 7대 의회에서 장애의원이 나올 수 있어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철회해야 한다는 게 제안자의 생각"이라고 답변했다.

결국 이 조례의 철회동은 표결에서 12명의 의원이 참여해

전원이 반대해 부결됐고, 운영위원회 수정안이 재상정돼 통과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남연 의원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려는 안건을 놓고 표결에 나서 가결시키는 등 진통을 겪기도 했다.